

《列女傳》과 《世說新語》의 惡女 形象 小考

- 《列女傳》의 <擘髮>와 《世說新語》의 <惑溺>을 중심으로

이영숙*

<目 次>

1. 들어가며
2. 《列女傳》과 《世說新語》의 창작과 시대적 배경
 - (1) 劉向과 《列女傳》
 - (2) 劉義慶과 《世說新語》
3. <擘髮>에 나타난 惡女 形象
 - (1) 권력욕, 그 목적을 위한 치밀함과 대담함
 - (2) 잘못된 행동과 음란함에 가려진 지혜와 충기
 - (3) 여색화근의 관념
4. <惑溺>에 나타난 惡女 形象
 - (1) '男尊女卑' 사상에의 정면 도전
 - (2) 시기와 질투, 탐욕- 자유로운 성정의 표출
 - (3) 여색화근의 관념
5. 맺음말

1. 들어가며

문학의 창작은 시대와 사회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文史哲을 아우르는

*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강사 applex72@hanmail.net

중국문학은 시대를 풍미하는 사회풍조와 사상이 문학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어 시대의 연구에는 문학을, 문학의 연구에는 시대를 미리 고찰하는 것은 필수 과제가 되었다.

본고에서 고찰하고자하는 《列女傳》과 《世說新語》는 각각 儒學사상이 지배적이었던 漢代와 老莊學과 玄學 등 및 다양한 사상이 시대를 풍미한 魏晉南北朝의 작품이다. 《列女傳》은 前漢의 학자 劉向이 중국 上古 堯舜시대로부터 春秋戰國 시대 歷代 유명한 여성의 傳奇를 열거한 작품이다. 유향은 당시 조비연에게 빠져 나라의 일을 소홀히 하던 成帝에게 바쳐 천자를 경계하고 궁중의 일을 풍자하기 위해 이 작품을 지은 것으로 漢代 여성관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世說新語》는 魏晉의 청담서로 魏晉남북조 시대 실존했던 다양한 인물들의 도덕수양 및 학술사상, 재능과 식견, 개성, 일상생활, 인간관계 등의 人事를 기록하고 있다. 《世說新語》는 문학사상 志人小說로 분류되나 실제 인물들을 모델로 한 작품으로 史書적으로 성격도 있어 《世說新語》를 통해 魏晉 시대 名士들 및 그들과 관계된 여성들의 생활이나 가치관, 명사들의 여성관 등을 고찰해 볼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두 작품의 성격은 비록 다르지만, 여성에 대해 권고하고 칭송할 만한 여성상뿐만 아니라 경계하고 배제해야 할 여성의 모습도 각각 따로 편을 두고 서술하고 있는데 《列女傳》의 <열폐> 편과 《世說新語》의 <혹닉> 편이다.

본고에서는 <열폐>와 <혹닉> 두 편의 부정적 여성상을 통해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두 시대의 여성관을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부정적 여성관에 대해 단순히 부정적 형상이라는 제한적 시각을 뛰어넘어 악녀 형상에 숨은 다양한 성향과 관점, 그리고 새로운 시각의 재해석까지 아울러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列女傳》과 《世說新語》의 창작과 시대적 배경

(1) 劉向과 《列女傳》

《列女傳》은 유향이 편찬했으며 총 7권으로 105조의 고사가 실려 있다. 내용은 <母儀> <賢明> <仁智> <貞順> <節義> <辯通> <孽嬖>으로 나누어 堯舜시대로부터 春秋戰國時代까지 역대로 유명한 총 105명의 여성에 관한 言行과 品德을 기록했다.

유향은 前漢 말기의 經學者로 宣帝·元帝·成帝 3대를 내리 섬겼으며 屬文에 뛰어나고 경술에 능하였으며 특히 분류학에 뛰어났다고 전해진다.¹⁾ 그는 목록 학자로 황실 전용 도서관을 관장하는 직책을 맡아 황국에 비장된 서책을 교감 정리 분류하여 《別錄》을 저술하였다. 여성을 7개의 유형별로 나누어 쓴 《列女傳》도 그의 뛰어난 분류학적 기치를 발휘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의 저서로는 자신의 정론을 담은 《新序》 및 교훈적인 이야기를 모은 《說苑》 등이 있다. 유향은 원제 때 散騎宗正給事中이 되어 외척의 득세를 물리치려다가 도리어 참소를 당하여 하옥되어 서인 신분이 되었다가, 성제 때 재차 등용되어 다시 외척인 王氏의 전횡을 상소하는 등 강직한 학자의 성품을 드러낸다. 유향이 《列女傳》을 지은 것 역시 성제가 후궁에 빠져 정사를 소홀히 하는 것을 풍자하고, 성제 이하 군주들에게 女色을 경계토록 권유하기 위함이었다.²⁾ 《四部叢刊本》의 序에도 유향이 이 책을 지은 목적이 나타나 있으며 또한 《文獻通考·經籍考》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漢은 秦나라를 이어서 풍속이 문란했고 더우기 成帝의 후궁 趙衛一族이 放恣했다. 王政은 반드시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니 옛날 여자들의 善惡이 흥망의 원인이었음을 들어 天子를 경계하고자 함이 「列女傳」 저술의 大意이다.(漢承秦之弊, 風俗大壞矣, 而成帝後宮趙衛之屬尤自放, 向以諷,

1) 《漢書·藝文志》：“至成帝時，以書頗散亡，使謁者陳農求遺書於天下。詔光祿大夫劉向校經傳、諸子、詩賦，步兵校尉任宏校兵書，太史令尹咸校數術，侍醫李柱國校方技。”

2) 《漢書·楚元王傳》附(劉向傳)云：“向睹俗彌奢淫，而趙、衛之屬起微賤，踰禮制。向以爲王教由內及外，自近者始。故採取《詩》《書》所載賢妃貞婦，興國顯家可法則，及孽嬖亂亡者，序次爲《列女傳》，凡八篇，以戒天子。”《初學記》卷二十五《屏風第三》引向《七略別錄》則云：“臣向與黃門侍郎歐所校《烈女傳》，種類相從爲七篇，以著禍福榮辱之效，是非得失之分，畫之於屏風四堵。”

王政必自內始, 故列古女善惡, 所以興亡者, 以戒天子, 此向述作之大意也)

성제는 후궁인 조비연을 총애하였는데 조비연은 황제의 총애만 믿고서 법도를 망각하고 황실을 타락시키는 행동을 자행하였다. 후궁인 班婕妤와 황후 許皇后를 포함하여 쫓겨나게 하더니 허황후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황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다.³⁾ 이러한 내용은 《漢書》 권97 <外戚傳>뿐만 아니라 《世說新語·賢媛3》 편에도 실려 있다.⁴⁾ 이런 사태를 지켜보던 유향은 한나라 황실의 후예로써 황실의 기강과 안정을 위해 그들에게 부녀자의 도리를 깨우쳐 주고 황제에게 경계의 의미로 《列女傳》을 지었다.

유향은 《禮記》에 나타난 유가적 여성관에 입각해 <母儀>에서는 남편과 자식을 잘 보필한 여성을, <賢明>에서는 사리에 밝은 여성을, <仁智>에서는 식견과 재능이 뛰어난 여성을, <貞順>에서는 예절을 철저히 지키는 여성을, <節義>에서는 절개를 실천한 여성을, <辯通>에서는 언변이 뛰어나 사건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여성 등 후대 표본이 될 만한 여성의 유형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孽嬖>에서는 남자와 나라를 망쳐 비난받아 마땅한 여성을 기록하였다. 각 편마다 각각 小序가 있고, 각 傳 말미에는 군자의 말이라 하여 識者의 간단한 贊이 있다. 또 《詩經》에서 각 전기의 내용과 유사한 구절을 인용하여 내용을 보충하면서 유가적 여성관의 입장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었으며 끝에 그 전기에 대한 頌을 첨가하였다. 종합하자면 유향은 7가지 유형의 여성 105명의 전기를 서술하여 허물어져가는 한의 윤리도덕을 바로잡고 후대에 귀감이 되도록 한 작품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책의 내용은 유가 사상에 입각하여 다분히 교훈적이며 봉건예교적 사상이 농후하다. 《列女傳》은 일찍이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궁중과 사대부 집안 여성들의 행실 지침서로 활용됨으로써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사실 유향의 《列女傳》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선진 시대의 인물로 이 작품을 통해 漢代 여성의 가치관이나 유형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향이

3) 《漢書》卷97<外戚傳>: “其後趙飛燕姊弟亦從自微賤興, 踰越體制, 寢盛於前。班婕妤及許皇后皆失寵, 稀復進見。鴻嘉三年, 趙飛燕譴告許皇后、班婕妤挾媚道, 祝詛後宮, 詈及主上。許皇后坐廢。”

4) 《世說新語·賢媛3》: “漢成帝幸趙飛燕, 飛燕讒班婕妤祝詛, 於是考問。”

이 책에 나오는 여성들을 표본으로 삼아 본받고 혹은 경계해야할 유형들을 분석해 놓았으니 이는 분명 漢代 士人들의 이상적 여성에 대한 관념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2) 劉義慶과 《世說新語》

《世說新語》는 南朝 劉宋의 臨川王 劉義慶이 편찬한 한말에서 魏晉남북조 시대까지의 약 200년간 실존했던 제왕과 고관귀족 및 文人·學者·賢者·隱者·婦女子·兒童 등 다양한 인물들의 생활과 일화를 기록한 작품으로 魏晉 시대 인물들의 풍모·사상·사회풍속 등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世說新語》는 전체 36편에 걸쳐 총 1,133조의 고사를 수록하고 있다. 내용상 교화, 해학, 사회고발, 청담논변, 인물품평 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魏晉 시대의 문학·사상·철학을 비롯하여 풍습이나 언어 환경 및 예술세계까지 전 분야에 걸친 고찰이 가능하기에 혹자는 魏晉 시대를 ‘《世說新語》의 시대’라고 까지 칭하고 있다.⁵⁾

《宋書·劉義慶傳》에 따르면 王族으로 여러 관직을 겸하고 있던 유의경은 성격이 소탈하고 문학을 좋아하여, 문학을 하는 선비들이 주위에 많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袁淑, 陸展, 何長瑜, 鮑照와 같이 당대의 문장가들이 衛軍咨議參軍 및 佐史國臣으로 초빙되어 유의경의 측근에 모여 있었다.⁶⁾ 《宋書》와 《南史》의 <列傳> 및 《隋書·經籍志》와 《唐書》의 기록에 의하면 유의경의 저술은 《世說新語》 외에도 《徐州先賢傳》 10권, 《典紘》, 《集林》 200권, 晉에서 宋에 이르는 시기의 진기한 이야기와 이상한 일들을 기록한 《幽明錄》⁷⁾ 30권, 불교의 영향을 받아 지은 《宣驗記》⁸⁾ 30권, 《江右名士錄》 1권, 《劉義慶集》 8권 등이 있으나 모두 유실되었다고 한다. 《世說新語》는 본래 8권이었으나 현재 전해지는 판본은 3권으

5) 宇都宮清吉, 〈世說新語の世界〉《漢代社會經濟史研究》, 東京, 弘文堂, 1955.

6) “爲性簡素, 寡嗜欲, 愛好文義, 才詞雖不多, 然足爲宗室之表。…招聚文學之士, 遠近必至。太尉袁淑, 文冠當時, 義慶在江州, 請爲衛軍咨議參軍, 其餘吳郡陸展, 東海何長瑜, 鮑照等, 並爲辭章之美, 引爲佐史國臣。”《宋書·劉義慶傳》

7) 志怪類로 분류되며 유실되었으나 魯迅의 《古小說鈞沈》 上冊에 266條가 집록되어 있다.

8) 역시 유실되었으며 魯迅의 《古小說鈞沈》 下冊에 35條가 집록되어 있다.

로 되어 있으며, 《유명록》 《선협기》만이 노신의 《古小說鈎沈》에 일부가 기록되어 있다.

많은 학자들은 유의경이 당시 황실 내부의 권력쟁탈 가운데서 정치에 크게 뜻을 두지 않고 “자신을 보전하기 위해 문사들을 불러 모아 문학과 사학에 빠져 들었으며 《世說新語》라는 청담지서를 편집하게 되었다”⁹⁾고 평하고 있다.

魏晉남북조 시대의 다양한 인물들의 다양한 일화들을 실은 《世說新語》는 당시 유행하던 노장철학과 현학, 청담논변과 인물품평의 풍조뿐만 아니라 유의경 자신이 만년에 신봉하였던 불교, 그리고 문벌세족의 근간이 되었던 유가 등 당시의 다양한 학술·정치·사회상을 담고 있어 명사들과 사회의 풍조 뿐만 아니라, 여성의 가치관이나 생활상, 그리고 사회의 여성관 등을 고찰할 때 매우 적합한 자료이다.

3. <擘髻>에 나타난 惡女 형상

<얼페>의 뜻을 풀어보자면, 擘은 ‘서자, 요괴, 재앙, 화근, 천민, 치장하다’의 뜻이 있고, 髻에는 ‘사랑하다, 귀여움을 받는다,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 종합하면 ‘재앙의 근원으로서 총애를 받는 자’ 정도가 될 것이다. <얼페>편은 책의 소제목으로 주로 ‘나라를 망친 여성’ 혹은 ‘음탕한 여성’으로 번역되었다. 이로써 <얼페>편은 현실을 통제하고자 하였던 남성들의 욕망이 규정한 표준에 벗어난 여성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편에 실린 15 명의 여성들은 음행과 권력욕으로 당시의 봉건예교 질서에 도전장을 던진 사람들이다. 제왕들의 교육 지침서인 《詩經·大雅》<瞻仰>편에도 ‘哲夫成城 哲婦傾城(남자가 똑똑하면 나라를 이루고 여자가 똑똑하면 나라를 기울게 한다)’라 하여 여자가 똑똑하면 나

9) “爲了全身遠禍，於是招聚文學之士，奇正文史，編輯了《世說新語》這樣一部清談之書。” 周一良，《世說新語和作者劉義慶身世的考察》，載《中國哲學史研究》，第1期，1981.

라를 망친다는 女禍의 관념이 고대 제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중 단연 수위를 차지했다. 본고에서는 남성들의 질서에 도전하고 금기에 도전하였다는 이유로 악녀로 평가되었던 여인들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고 아울러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지도 고찰해 보겠다.

(1) 권력욕, 그 목적을 위한 치밀함과 대담함

《列女傳》에는 다양한 신분의 여성이 등장한다. 국가의 군주의 정실부인에서부터 후비, 각 제후국의 정비 및 첩 등 왕가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귀족 가문의 여성, 맹자의 모친 등 평범한 가정의 여성, 마부의 아내 등 신분이 낮은 이를 비롯해 이름 모를 동네 처녀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열폐>에 등장하는 15명의 여성들은 모두 군주나 제후의 부인이거나 첩의 신분으로 다른 여성들에 비해 사회적 신분이 높은 편이다. 이들의 지위는 이들의 탐욕과 신분상승에의 욕망을 부추기는 근본적 요인이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췌나라 獻公(재위 677-651 B.C.)의 驪姬이다. 여희는 여용국을 정벌한 헌공의 네 번째 부인으로 헌공과의 사이에서 奚齊와 卓子를 낳는다. 여희는 전부인 소생 태자 신생을 폐하고 자신의 아들 해제를 태자로 삼기 위해 치밀한 계략을 세운다. 여희는 우선 전 부인 소생인 申生과 重耳, 夷吾를 먼 지방에 파견케 하고, 태자 신생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제왕을 몰아내고 제위를 차지하려 할 것 같다고 모함한다. 이 과정에서 여희는 논리정연한 논조로 은왕조 주왕의 경우까지 예를 들면서 역대로 백성을 등에 업고 제위를 차지한 이들의 이야기로 헌공의 마음을 혼든다. 그녀는 신생의 땅을 찾아 제사를 드리고 음복하는 음식에 몰래 독을 넣어 헌공에게 증거를 삼게 하고 이로써 신생이 스스로 목을 매 죽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하여 결국은 자신의 아들 해제를 태자로 세우게 된다. 여희는 결국 태부 이극에 의해 두 아들 해제, 탁자와 함께 매를 맞아 죽게 된다.

《列女傳》은 처절한 인과응보의 결말로 마무리 되는 점을 강조하며 『詩經·大雅』 「첨앙」 편을 인용하여 “여자가 말이 많음은 禍亂의 실마리다”이자, “지혜 있는 여자는 城을 멸망시킨다”¹⁰⁾고 비판하는 뜻을 표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그

녀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운 주도면밀한 계획과 대담한 실천력과 권력에 대한 집착이다. 그녀는 기원전 681년경에 중국 서쪽 섬서성의 이민족 여융족 왕의 딸로 태어나 기원전 664년 쯔나라 헌공이 여융을 정벌하자 포로로 끌려와 헌공의 전리품이 된다.¹¹⁾ 전쟁에 패한 나라의 여인으로 원수인 정복자의 노리개가 되었으니 권력과 힘에 대한 한이 뼈 속 깊이 자리 잡았을 수 있다. 북방 이민족 여융국 출신인 그녀에게 태생부터 정복과 소유의 피가 흘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녀가 여융국 출신인 우시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이국만리 타향에서의 외로움을 고향사람을 만나 달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 미소년과도 관계를 가질 만큼 화려한 헌공의 여성편력도 그녀의 악녀적 행위에 불을 지폈는지도 모른다. 이런 기반에서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제위에 올리기가까지의 주도면밀한 계획들과 쯔의 梁五와 東關五 등을 포섭하는 등의 역량은 눈여겨 볼만한 역량이라 하겠다.¹²⁾ 유항조차 “지혜있는 여자는 城을 멸망시킨다”라 하면서 그녀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았는가?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이기에 그녀의 계획대로 해제가 제왕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렸다면 평가는 달라졌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魏 宣公의 부인 宣姜의 이야기는 《詩經·邶風》의 <二子乘舟>로 더 유명하다. 齊나라 僖公에게는 여러 자녀 중 친하질색인 宣姜과 文姜이라는 딸이 있었다. 언니 선강은 위나라 임금 위 선공의 후궁이 되고, 동생인 문강은 노나라의 환공에게 시집갔다. 위나라 선공은 음탕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버지 장공의 후궁인 이강과 불륜을 저질러 슬을 낳았고 며느리로 삼고자 데려온 이가 齊 회공의 딸 선강이다. 선공은 질색인 선강을 보고 아들 급을 송나라 사절로 보낸 후 며느리가 되어야 할 선강을 자신의 후궁으로 삼는다. 이 둘 사이에 壽 와 朔이라는 아들 둘이 생겼다. 선강은 자신의 아들을 급 대신 태자자리에 앉히기 위해 계략을 꾸미는데 음모를 알게 된 수가 이복형인 급 대신 자객에게 암살 당하려 급이라 주장하여 살해당하고 급 역시 사실을 알게된 자객에게 죽임을 당한다. 《詩經·邶風》의 <二子乘

10) “婦有長舌，惟厲之階” “哲婦傾城。” 《詩經·大雅》〈瞻仰〉

11) “二十八年春，齊侯伐衛。戰，敗衛師。數之以王命，取賂而還。晉獻公娶于賈，無子。烝於齊姜，生秦穆夫人及太子申生。又娶二女於戎，大戎狐姬生重耳，小戎子生夷吾。晉伐驪戎，驪戎男女以驪姬歸，生奚齊，其嬀生卓子。” 《左傳·莊公二十八年》

12) “驪姬嬖，欲立其子，賂外嬖梁五與東關嬖五。” 《左傳·宣公》

그녀들은 성취를 택했다. 역사의 희생자지만 결국 권력을 탐하고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죄목으로 이들은 역사속에서 악녀로 패륜녀로 평가받는다. 유가사상을 정치이념으로 표방한 漢代의 중법제도와 봉건예교가 엄격한 사회분위기에서 남성과 사회의 보조인 정도에 머물러야하는 여성들의 큰 목소리와 대담함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치명적 악행이었다. 그러나, 권력을 차지하기까지 제왕을 상대로 한 논리적인 논변과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성, 그리고 즉각적이고 일사분란하며 대단한 실천력은 당시 여성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진보적이며 적극적인 태도였다. 이들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선구적 활약은 후대에 새롭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2) 잘못된 행동과 음란함에 가려진 지혜와 충기

魯나라 宣公의 繆姜은 역사에서도 총명하고 지혜로운 일면을 인정하고 있고 《列女傳》에서도 다소 측은한 입장을 표한다. 본문의 이 여성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의 성품은 총명하고 지혜로우나 그 행실은 난잡하였다. 그래서 시호를 繆이라 했다(聰慧而行亂, 故諡曰繆)”라 표현하였다. 繆는 ‘잘못되다’ ‘그릇되다’ 라는 뜻이다. 목강 기록을 보면, 목강은 叔孫僑如와 통정하고 그와 함께 모의하여 季孟을 제거하고, 魯나라를 멋대로 천단하려 하였다. 그러나 노나라 사람들은 동맹하여 교역을 몰아내고 목강을 東宮으로 내쫓았다. 동궁으로 쫓겨날 때에 목강이 사람을 시켜 짐을 친 일화가 《列女傳》에 실려있다.

목강이 짐을 치게 하니 艮卦의 六으로 나왔다. 짐쟁이는, “이는 艮의 隨卦로 나아가는 것을 따르라 한 것이니, 그대는 반드시 빨리 나올 것입니다”라 풀이하자 繆姜은 “이 짐쟁이는 옳지 않다. 『周易』에 ‘隨는 元·亨하니 利·貞이라 허물이 없다.’고 하였는데, 元은 선한 일의 제일이요, 亨은 아름다운 것이 합한 것이며, 利는 옳은 일이 화한 것이요, 貞은 일의 즐기이다. 이 때문에 비록 나온다 하여도 허물이 없는 것이지만, 지금 나는 부녀자이면서 亂에 참여하였고,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어질지 못하였으니 가히 元

이라고 이를 수가 없으며, 나라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亨이라고 이를 수가 없으며, 일을 일으켜서 몸을 해쳤으니 利라고 이를 수도 없으며, 지위를 버리고 음란하였으니 貞이라고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네 가지 덕을 가진 자는 따르다 하더라도 허물이 없을 것이겠으나, 나는 모두 다 갖지를 못하였으니 어찌 따를 수 있겠는가. 나는 곧 악한 일만 취하였으니 어찌 허물이 없다 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이곳에서 죽을 것이고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하더니, 마침내 동궁에서 죽었다. (始往，繆姜使筮之，遇艮之六。史曰：「是謂艮之隨。隨其出也，君必速出。」姜曰：「亡。是於周易曰『隨，元亨利貞，咎。』元，善之長也；亨，嘉之會也；利，義之和也；貞，事之幹也。終故不可誣也，是以雖隨咎。今我婦人而與於亂，固在下位，而有不仁，不可謂元；不靖國家，不可謂亨；作而害身，不可謂利；棄位而放，不可謂貞。有四德者，隨而無咎，我皆無之，豈隨也哉！我則取惡，能無咎乎！必死於此，不得出矣。」卒薨於東宮。)

목강과 점쟁이의 대화는 목강이 《周易》 등의 학문에 상당히 통달했음을 보여 준다. 그녀는 지식을 갖추었으며 논리적이며 위기의 순간에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에 대해 냉정히 평가할 줄 알았다. 목강은 비록 음란했으나,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였고 잘못된 행실을 인정하는 객관적 입장을 표명한다. 같은 책 <정순>편은 선공과 목강의 딸 백희가 《禮記》의 도리를 따르다 불에 타 죽은 일화를 소개하며 백희의 위의를 높이 칭송하였다. 그 중 백희의 모친인 목강이 송나라로 시집간 백희가 남편이 도리를 다하지 않아 남편을 제대로 따르지 않음을 대신 사과하고 함께 온 계문자에게 예를 다해 감사하는 대목이 나온다.¹³⁾ 음란한 성향을 빼고 본다면, 《周易》 등 학문에 정통하고 논변에 있어 그 논리가 정연하니 가히 ‘辯通’하다 할 수 있고, 자신의 부덕함을 알고 처신하였으니 가히 ‘賢明’하다 하겠다. 또 후자의 일화까지 종합해 보면 목강은 상당히 예에도 밝고 도리도 알며 지혜가 출중한 여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는 그녀의 음란함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다른 여성인 南子是 宋나라 출신으로 衛나라 靈公의 부인이다. 《列女傳》에

13) 《左傳·成公》에도 같은 일화가 실려 있다. 典籍에서는 繆姜과 穆姜을 통용하여 쓰고 있다. “夏，季文子如宋致女，復命，公享之。賦韓奕之五章。穆姜出于房，再拜，曰，‘大夫勤辱，不忘先君，以及嗣君，施及未亡人，先君猶有望也。敢拜大夫之重勤。’又賦綠衣之卒章而入。”

서는 그녀의 음란함만을 부각시켜 기록하였지만, 그녀 역시 목강 못지않게 총명하고 사리판단이 밝은 여성이었다. 《小學》 내편의 기록을 보자.

영공이 밤에 부인과 더불어 앉았는데, 수레 소리가 덜거덕거리다가 대궐 앞에 이르러 그 소리가 그쳤다가, 대궐을 지나서 다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공이 부인에게 누구일까라 물었다. 그녀는 “예법에 대궐 문 앞에서 내리고 路馬(임금이 타는 말)에게 경계하는 것은 공경을 넓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대개 충신과 효자는 신의와 절조를 드러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며, 으스스하고 어두운 데서도 행할 일을 게을리 하지 아니 하는 것인데, 거백옥은 위 나라의 어진 大夫입니다. 그는 어질고도 슬기로와 위를 섬기는데 공손하니, 이는 거백옥(蘧伯玉)입니다”라 하였다. 공이 백옥인줄 알면서도 부인을 놀리려고 일부러 “그가 아니다” 하니, 부인이 술잔에 술을 부어 올리면서 두 번 절하고는 공을 축하길 “처음 衛나라에 오직 거백옥 한 사람이 있는 줄만 알았는데, 지금 衛나라에 다시 그와 더불어 짝 지을 만한 이가 있으니, 이는 곧 임금에게 신하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어진 신하가 많이 있다는 것은 곧 나라의 복입니다”라 하자 공이 놀래며 “훌륭하다”며 사실대로 말해 주었다. (衛靈公與夫人夜坐. 聞車聲鞳鞳, 至闕而止, 過闕復有聲. 公問夫人曰, 知此爲誰. 夫人曰, 此蘧伯玉也. 公曰, 何以知之. 夫人曰, 妾聞, 禮下公門, 式路馬, 所以廣敬也. 夫忠臣與孝子, 不爲昭昭信節, 不爲冥冥惰行. 蘧伯玉衛之賢大夫也. 仁而有智, 敬於事上. 此其人必不以闇味廢禮. 是以知之. 公使人視之, 果伯玉也.)¹⁴⁾

역사에서는 거백옥이 훌륭한 신하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 일화를 기록하였지만, 이 일화를 통해 예법에 밝으며 충신을 알아보는 뛰어난 인지력을 갖추고, 제왕과 담론을 펼치는 현명한 남자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남자의 총명함은 그녀의 문란한 생활에 가려져 역사에서 높이 평가받지 못했다. 그러나, 역사에서는 그녀의 거만함과 음란함만을 기록하고 있다.

14) 《小學·稽古·明倫24》

공이 부인과 더불어 수레를 타고 가는데 孔子를 다음 수레에 타도록 하고는, 겉으로 뽐내면서 시가를 지나가므로, 공자는 그것을 추하게 여겨 말하기를, “나는 이제까지 德을 좋아하되 色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¹⁵⁾하고는 위나라를 떠났다. (靈公與夫人同車, 宦者雍渠參乘, 出, 使孔子爲次乘, 招搖市過之. 孔子曰: “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 於是醜之, 去衛, 過曹.)¹⁶⁾

남자의 음란한 행각은 공자를 유혹했다고 《論語》에 기록될 정도로 난잡했고 《史記》 「孔子世家」에도 남자와 공자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다. 남자는 송나라의 공자 조와 간통하고 이를 알게된 위나라 태자 괴외가 그것을 알고 그를 미워하였다. 남자는 영공에게 태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모함하고 괴외는 송나라로 도망쳤다. 영공이 죽자 괴외의 아들 첩이 대를 이어 즉위하여 出公이 되었는데, 괴외가 다시 돌아오자 출공은 노나라로 달아나 버렸으며, 괴외가 임금이 되어 남자를 죽였다고 전한다.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남자는 간통을 일삼는 음란한 여인이었으나, 상황판단이 뛰어나고 논리적이며, 군주의 마음을 만족시킬만큼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명석함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에서 성인으로 추앙하는 공자의 혹평을 받았던 남자가 그 뛰어난 점을 높이 평가받을 수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앞의 두 여성을 통해 음란한 성정으로 지혜와 총명함은 역사속에 가리워지고 사장되었다. 일찍이 맹자는 “食色은 본성이다(食色, 性也)”¹⁷⁾이라 하며 식욕과 색욕이 인간의 본성이라 말한 바 있다. 인간의 본성인 성에 대한 욕망은 곧 삶에의 의욕과 열정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 성은 바로 종족보존의 수단이므로 성욕이 강한 여성은 훌륭한 종족을 낳을 수 있는 여성인 것이다. 그러나, 이 열정적이고 의욕 넘치는 여성들은 봉건예교라는 억압과 부자유의 가정과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그 에너지를 발산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음란함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이들의 그 지혜로움과 총명함보다 음란함이 부각된 까닭이 ‘여자란 가까이 할 것도 멀리 할 것

15) “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 《論語·衛靈公》

16) 《史記》〈孔子世家〉

17) “食色, 性也” 《孟子·告子》

도 아니다(不可近 不可遠) ‘여자와 소인은 교양하기 어렵다(唯女子與小人爲難養也)’¹⁸⁾라 주장한 孔子의 여성관과 ‘여자는 재주가 없는 것이 덕이다(女子無才而是德)’라는 봉건예교의 여성관이 이 시대를 강하게 지배했기 때문이다.

(3) ‘여색화근’의 관념

중국의 전통 관념에는 “여색은 화근이다(女色禍水)”라는 말이 있는데 즉 아름다운 여자는 자신의 미모를 믿고 거만하며, 미덕이 없고, 가정과 조정에 재난과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겼다. 역사서에 기록된 음란하고 혹은 질투하고 탐욕하는 여자는 대부분이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다. 미모는 여자가 생존하고 경쟁 할 수 있는 최대 큰 자본이며 동시에 남자에게도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다. <얼폐> 편에 서술된 15명의 여성들은 하나같이 빼어난 미모와 요염한 자태를 자랑한다.

<列女傳>에서는 이미 ‘현명한 추녀’ 이야기를 통해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어떻게 일조를 했는지를 전하면서 은근히 “여색은 화근이다”라는 관념을 밝히고 있다. 남성들에 의해 선택된 ‘못생긴 여인’ 들은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화려한 왕비로 변신해 남성의 권력세계에 편입한다는 것이다.¹⁹⁾ <얼폐>에 기록된 夏왕조의 마지막 왕인 桀왕의 末喜와 殷왕조 마지막 왕인 紂왕의 妲己, 周나라 幽王의 褒姒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여인들이다. 오랜 기간 역사에서는 夏왕조와 殷왕조, 周왕조가 망한 주요 원인을 이 세 여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나라 걸왕은 악독하고 탐욕스러웠으나 남다른 힘과 지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걸왕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마침내 하나라를 멸망케 만든 여인이 바로 말희라 한다. 말희는 걸왕이 정복한 오랑개의 有施氏國의 진리품으로 걸왕은 말희에게 빠져 그녀의 소망에 따라 진국에서 선발한 3,000명의 미소녀들에게 오색찬란한 옷을 입혀 날마다 舞樂을 베풀기도 했다. 또 말희의 요구로 궁정 한 모퉁이에

18) “唯女子與小人爲難養也”《論語·陽貨》

19) 《列女傳》「辯通」에 기록된 鍾離春, 宿瘤女 등은 못생기고 심지어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등 외에도 결함이 있으나 사리에 통달하고 뛰어난 언변으로 군주에게 도움을 주 고 황후의 지위에 까지 오른 인물들이다.

큰못을 파고 바다에 새하얀 모래를 깔고 향기로운 술을 가득 채웠다. 못 둘레에는 고기로 동산을 쌓고 포육으로 숲을 만들고 못의 술을 마시고 숲의 포육을 탐식하는 광경을 구경하며 희희낙낙 즐겼다. 또한 걸왕에게 충성스런 마음으로 나라를 바로 잡으라고 호소하는 충신들은 모두 죽음을 당하거나 쫓겨 나갔다. 결국 하나라는 은나라의 탕왕이 이끄는 군대에 멸망하게 되었다.

오랑캐를 정복시킬만큼 힘과 기량을 지니고 있던 걸왕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지경에 까지 이른 것은 요부인 말희의 손에 놀아나 정사를 돌보지 않고 국고를 탕진했기 때문이라고 역사는 평가한다. 그리고 어리석은 걸왕의 극악무도함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紂王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殷나라 紂王이 성질이 거칠고 포악하여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탐욕에 만 빠져 정사가 말이 아니었다. 거기에다가 妲己라는 미녀에게 취하여 밤낮 주색에 빠져 고기를 숲처럼 쌓아 놓고 술을 빚어 못에 댈 정도로 호화를 다하였다. 「은나라 紂왕이 술을 좋아하고 풍류에 빠져 사구(沙丘)에서 즐길새, 술로써 못을 삼고 고기를 걸어서 숲을 이루고서, 남너로 하여금 벌거벗겨서 서로 그 사이에서 장난치게 하여 밤이 새도록 마시니 백성이 원망하였다. (帝紂資辨捷疾, 聞見甚敏; … 好酒淫樂, 嬖於婦人. 愛妲己, 妲己之言是從. 於是使師涓作新淫聲, 北里之舞, 靡靡之樂. 厚賦稅以實鹿臺之錢, 而盈鉅橋之粟. 益收狗馬奇物, 充仞宮室. 益廣沙丘苑臺, 多取野獸蜚鳥置其中. 慢於鬼神. 大冢樂戲於沙丘, 以酒爲池, 縣肉爲林, 使男女僕相逐其間, 爲長夜之飲.)²⁰⁾

주왕은 제율의 아들로 하나라 걸왕과 더불어 중국 역사상 폭군의 대명사로 알려져 왔다.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은 힘이 장사이고 민첩했으며 문무 또한 겸비하여 수차례 동이족을 정벌하여 많은 노예와 재물을 획득했다.²¹⁾ 그러나 사치스럽고 부패하여 사회모순을 가중시켰다. 문헌은 그가 즉위한 후 보물창고를 만들고 옥문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제신은 포악스럽고 간언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

20) 《史記·本紀》

21) “材力過人, 手格猛獸; 知足以距諫, 言足以飾非.” 《史記·本紀》

나라 괴팍한 행동을 일삼아 微子가 떠나고, 箕子가 천민이 되었으며, 比干은 간언하다 죽었다.

周나라 幽王의 褒姒 역시 뛰어난 용모와 자태로 결국 나라까지 망하게 한 傾國之色으로 역사에서 그 이름을 남기고 있다. 웃지 않는 포사가 유난히 봉화불 올리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짓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수시로 거짓 봉화불을 피워 결국 전쟁이 났을 때도 제후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고 마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고사로 전해진다. 후에 건융족 추장의 아내가 된 포사는 자결을 하는데, 이 대목은 포사가 강단과 의리가 있는 여인임을 보여준다.

역사서는 하나같이 하나라 걸왕과 은나라 주왕은 원래 智勇을 겸비한 賢主였고, 주나라 幽王도 무능하긴 했으나 폭군은 아니었는데, 각기 말희, 달기, 포사라는 희대의 妖女毒婦에게 빠져 사치와 주색에 탐닉하고 극악무도한 성정이 꽃을 피워 결국 暴君淫主라는 낙인이 찍힌 채 나라를 망치고 말았다고 기록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역대로 승리한 자의 역사가 말희, 달기, 포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명분을 정당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역사의 전개에서 뒤에 권력을 잡은 정권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직전의 역사를 부정 왜곡한 예를 도처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설도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이들 세 왕이 원래부터 폭군은 아니었는데, 모두 각각 세 명의 요부에 의해 포악해지고, 나라를 패도로 이끌었다는 관념이 “여색은 화근이다(女色禍水)”이라는 전통적 관념에 부합된다는 점이다. 후한의 班昭가 지은 《女誡·婦行》에서도 여자의 4가지 덕 婦德, 婦言, 婦容, 婦功을 논하면서 “부용이란 반드시 얼굴이 고운 것이 아니다… 먼지와 때를 닦고 빨아서, 의복을 깨끗이 하며, 때때로 목욕하여, 온몸에 더러움이 없게 하는 것이 婦容이다”²²⁾라 했듯 여자의 용모는 청결하고 남들에게 불쾌함만 주지 않으면 되며 존재 목적 자체가 남성을 위한 역할에만 제한된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관념과 더불어 미인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 또한 일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²³⁾

이외에도 陳나라 여인 夏姬 역시 경국지색이자 음란하기로 이름이 높은 여성

22) “婦容, 不必顏色美麗也…澼流塵穢, 服飾鮮潔, 沐浴以時, 身不垢辱, 是謂爲婦容。”《女誡·婦行》

23) 〈明清文言小說狐意擬象解讀〉, 黃建國, 西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5 참조.

으로 진나라의 대부 하어숙과 결혼하여 정서를 낳았다. 그녀는 결혼하기 전부터 통정해오던 자기의 친오빠인 영공뿐 아니라 공령, 의행보라는 두 사람의 대부와의 각기 관계를 맺고 있었다. 세 사람은 하희의 속옷을 얻어 그것을 조정의 회의석상에 까지 입고 나와 서로 자랑할 정도였다. 《列女傳》에서는 첫머리에 “그 생김새의 아름다움은 필적할 만한 자가 없고, 내적으로는 남자를 다루는 재주가 있었으며, 늙어서도 거둑 젊고 아름다웠다(其狀美好無疋, 內挾伎術, 蓋老而復壯者)”고 평할 정도로 그녀의 미색을 강조하였다. 하희와 진영공의 陰事에 관한 시가는 《詩經·진풍》〈株林〉²⁴⁾에도 실릴 정도로 유명하였다. 유향은 하희의 아름다움에서 비롯된 음행에 초점을 맞추느라 미색에 빠져 살인과 부도덕의 만행을 벌인 제왕과 대신들에게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았다.

이밖에도 조나라의 영오녀에 대해 그 얼굴은 아름답게 생겼으나 덕이 없고 잔인하고 무도하며, 여자이면서도 상냥하지 못하며 거친 남자의 마음처럼 사납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있었다(美於色, 薄於德, 亂擊無道, 女子行丈夫心, 佩劍帶冠。) 라 묘사하였다.

모두 치명적인 아름다움으로 인간의 존엄과 무너뜨리고 나라의 존폐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어야했던 여인들이다. 여인의 아름다움은 남성들의 로망이자 환상인 동시에, 답답한 사회현실의 도피처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남성과 사회는 자신들의 부도덕과 패륜의 책임을 자신들이 무시하고 때로는 위안을 얻었던 여성들에게 씌워졌던 것이다. 건고한 유가사상의 성에서 ‘女色禍根’의 관념은 궁지에 몰린 남성들의 최후의 피난처인 썸이다.

이상으로 《列女傳》에 나타난 악녀의 형상을 살펴보았다. <얼페>편의 15명의 여성들은 악녀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배경을 가졌으며 성향도 출신도 다 채롭다. 어떤 이는 지혜롭고 총명하며, 어떤 이는 정치적 야심이 있었으며, 어떤 이는 외로움과 향수에 남자들과 끊임없이 교류했으며 넘치는 끼와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음란함으로 치닫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용맹하고 대범했기에 비난을 받았고, 남자들이 지지른 악행조차 자신들의 허물

24) “胡爲乎株林 從夏南 匪適株林 從夏南 / 駕我乘馬 說于株野 乘我乘駒 朝食于株” 《詩經·陳風》〈株林〉

로 질책받았다. 이들은 <얼폐>편에 음란하고 쾌락한 여인들의 대표로 기록되어 사회와 시대의 수많은 질타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와 사회의 규범과 제도에 결코 수동적이지 않았다. 남성들의 식견과 재능을 뛰어넘는 요소도 있었던 그들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남성중심의 사회를 당황시켰으며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시대는 앞선 의식을 가진 이들이 변화시키는 법이다. ‘三從四德’의 유가적 이데올로기와 견고한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던 사회에서 비난받았던 이들의 열정과 의욕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들이 정치적, 사회적 시대를 달리 만났다면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산출해냈을지 모르는 일이다.

4. <惑溺>에 나타난 惡女 형상

감정에 충실하고 세속의 예법의 끈이 다소 느슨했던 魏晉남북조 시대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었으나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내면과 성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치적으로는 혼란하여 세상사에 염증을 느끼고 죽림으로 들어간 ‘죽림칠현’ 등이 등장한 반면, 문학과 문화적으로는 성대한 발전을 이루었다. 《世說新語》에는 당시 名士들의 여러 가지 일화를 통해 <雅量> <豪爽> <自新> <企羨> <術解> 등 바람직하고 귀감이 될 만한 언행과 성정뿐만 아니라, <任誕> <簡傲> <排調> <輕詆> <假譎> <儉嗇> <汰侈> <忿狷> <讒險> <緋漏> <惑溺> <仇讎> 등 유가의 관점에서 도외시하던 방자한 성정과 대담한 언행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일화들을 통해 魏晉南北朝 시대 사람들의 다양하고 개방적인 성정의 표출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해 볼 수 있다.

여성들도 당시 사회를 풍미했던 이러한 기류를 타고 장기간 행해졌던 부부관계의 불평등이나 모순에 대해 투기나 질투라는 행동으로 자신의 입지에 대해 표현을 하였고, 권력과 재물에 대한 탐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출해 내기도 했으며 명사

들과 마찬가지로 분노하고 남을 깔보는 언행도 하지 않았다.

《世說新語》에서는 <賢媛>과 <혹녀> 두 편에 각각 이상적 여성상과 전통적 관념에 반하는 여성상의 두 가지 여성상을 제시하였다. <현원> 32조의 일화를 통해 이상적 여성상을 기록했다면, <혹녀>편의 7조의 일화를 통해서서는 질투하고 탐욕하고 방자하며 제멋대로인 여성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상적인 <현원>편에 소개된 여성도 전통적인 ‘三從四德’에 부합하는 여성의 형상이라기보다는 才智가 뛰어나고 식견과 재능, 담론이 뛰어난 여성들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두 편 이외에도 각 편에 다양한 여성들의 언행과 품성에 관한 기록이 곳곳에 실려 있어 魏晉남북조 시대 여성들의 자유로운 성향과 생활 및 평등한 남녀관계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다.²⁵⁾ 본고에서 연구할 <혹녀>편을 정의하자면 사전에 惑은 ‘미혹하다’ 현혹시키다, 溺은 ‘탐닉하다’ ‘빠지다’라 되어 있다. ‘惑溺’을 찾아보면 ‘①몹시 반하여 제 精神을 잃고 빠짐 ②迷惑되어 耽溺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녀>편의 등장인물들이 모두 여성이니 惑하고 溺하는 주체는 여성이요, 그 대상은 남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列女傳》의 <열폐>편과 마찬가지로 남성중심적이며 여성 비하적이다. 그러나, 《世說新語》에서는 이들 여성들의 기록에 객관적 어투로 일관하며 어떠한 평가의 말도 하지 않고 묘사하였다. 《列女傳》의 <열폐> 편이 아름답고 요염한 모습을 지닌 여성이 군주나 권력자를 등에 업고 악행을 저지른다는 평면적 내용을 기록하고 작가의 평을 달아 비판을 가했다면 《世說新語》는 자유분방하며 솔직하여 때로는 방만하기까지 입체적인 형상의 다양한 여성들을 기록하였다. 본고에서는 <혹녀>편에 나타난 7명의 여성을 다음의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男尊女卑’ 사상에의 정면 도전

<혹녀6>에 실린 왕용과 부인의 대화는 부인이 남편에 대해 애정과 친밀함의 표현으로 ‘卿’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일화를 기록했다.

25) 〈《世說新語》를 통해 본 魏晉時代 女性〉, 이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6 참조.

王安豐(王戎)의 부인은 늘상 안풍을 자네라 불렀다. 안풍이 말하길: “부인이 남편을 경이라 부름은 예의에 불경하니, 후로는 다시 그리 부르지 마오”라 했다. 부인이 이르길: “자네와 친하고 자네를 사랑하여 자네를 경이라 부르는 것이오. 내가 자네를 자네라 부르지 않으면 누가 자네를 자네라 부르겠소?” 마침내 항상 그리하라 수락하였다. (王安豐婦, 常卿安豐. 安豐曰:「婦人卿婿, 於禮爲不敬, 後勿復爾。」婦曰:「親卿愛卿, 是以卿卿; 我不卿卿, 誰當卿卿?」遂恒聽。)

魏晉남북조 이전에 ‘卿’이란 호칭은 주로 작위나 관직을 칭하는 용어로 上卿, 卿大夫, 三公九卿 등이 그 예로 《禮記·王制》에는 “諸侯의 上大夫를 卿이라 한다”²⁶⁾라고 되어 있다. 혹은 고대 군주가 신하를 부르는 呼稱으로 《韻會》에서는 “秦漢이래 임금의 신하를 경이라 칭했다”²⁷⁾라고 했다. 혹은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호칭으로 쓰였다.²⁸⁾

이렇듯 魏晉남북조 시대 이전에 ‘卿’이란 호칭은 대부분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年長者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다. 魏晉남북조 시대에 와서 ‘卿’이라는 호칭은 ‘爾’나 ‘汝’와 같은 어감으로 친한 사이의 동년배나 그 이하의 사람에게 사용했다. 봉건예교에서는 남편을 ‘官人’이나 ‘君’으로 호칭했다. 예를 들어 山濤의 처도 산도를 ‘君’이라 칭했다.²⁹⁾ 왕용의 아내가 봉건사회에서는 감히 부를 수 없는 ‘卿’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 왕용이 지적하자, 부인은 부부관계에서 ‘친밀(親)함’과 ‘애정(愛)’이 있어야함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남편의 지적에 반박을 하였다. 세상의 정치에 염증을 느껴 죽림으로 들어간 竹林七賢³⁰⁾인 한 사

26) 《禮記·王制》“王者之制祿爵, 公侯伯子男, 凡五等, 諸侯之上大夫卿, 下大夫, 上士中士下士, 凡五等”

27) 《韻會》“秦漢以來, 君呼臣以卿。”

28) 《樂府詩集》에 실린 〈孔雀東南飛〉에는 “내가 당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강요 때문이라네(我自不驅卿, 逼迫有阿母)”라는 표현이 나온다.

29) 《世說新語·賢媛11》에서는 재능과 식견을 지닌 山濤의 처 韓氏가 嵇康, 阮籍과 교류하는 산도와 대화하는 내용의 일화를 실고 있다. 여기에서 한씨는 남편에게 ‘君’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

30) 魏나라 말엽 쫓나라 초에 老莊의 사상을 숭배하여 속세를 떠나 죽림에서 술을 마시면서 清談을 하고 지내던 일곱 사람으로 嵇康(嵇康)·阮籍(阮籍)·山濤(山濤)·向秀(向秀)·劉伶(劉伶)·王

람인 왕용의 논리에 반박한 그녀의 논리는 《禮記》에서 人義(인간으로서의 의로움)³¹⁾의 열 가지 중 하나로 강조한 ‘夫義婦聽’의 기준을 타과한 것으로, 실로 ‘명교를 넘어서 자연에 순응(越名教而任自然)’하고 있는 표상이다. 왕용의 처가 왕용보다 애정과 친밀함을 표현하는데 있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더구나 남편 왕용도 부인의 말에 수긍하여 ‘卿’이라는 호칭을 허락하니, 일면 왕용과 부인은 평등한 부부관계를 보여 주는 예라 하겠다. 훗날 부부간의 애칭을 ‘卿卿’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혹닉> 편에 수록된 여성은 아니지만, 유가적 도덕의 표준을 넘어서 본성에 따라 남성에게 대해 거리낌 없이 표현한 예가 <容止7>에도 기록되어 있다.

潘岳은 용모가 빼어났으며 표정과 태도가 매력적이었다. 젊었을 때 彈弓을 옆에 끼고 洛陽 거리로 나가면 그를 만난 여인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그를 에워싸지 않은 자가 없었다. 左太沖(左思)은 너무 못생겼지만, 역시 潘岳을 흉내내어 놀러 나갔다가 여인들이 모두들 그에게 침을 뱉어서 의기소침하여 돌아왔다. (潘岳妙有姿容, 好神情; 少時, 挾彈出洛陽道, 婦人遇者, 莫不連手共縈之. 左太沖絕醜, 亦復效岳遊遨於是群嫗齊共亂唾之, 委頓而返.)

반악은 빼어난 용모를 지녔고, 표정과 태도가 매력적이었다고 전한다.³²⁾ 상기 고사에 따르면 미남자인 반악에 대한 魏晉 시대 여성들의 적극적인 태도는 당시 美와 이성에 대한 대담하고 솔직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점차 기존의 가치판단을 넘어서 審美적인 관점으로 대등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중요한 점은 여성들도 마음껏 美男子를 감상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또 마음껏 비난을 했다는 점이다. 여성들이 진부한 규범의 끈을 내려놓고 과일을 던짐으로써 애모의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냈는데 이는 순수하고 대담하게 감정에 충실한 행위라 볼 수 있으며 남존여비의 유가적 관념에서 본다면 가히 과격적이며 일탈적

(王戎)·완함(阮咸)이 있다.

31) “父慈, 子孝, 兄良, 弟弟, 夫義, 婦聽, 長惠, 幼順, 君仁, 臣忠” 《禮記·禮運》

32) <容止7> 劉注) 引《潘岳別傳》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후닉5>는 고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애정에 솔직하고 감정에 충실하여 성공적인 혼인에 이른 일화를 기록하였다.

韓壽는 용모가 준수했는데, 賈充이 초빙하여 속관으로 삼았다. 賈充이 매번 모임을 가질 때마다 賈充의 딸(賈午)이 푸른 격자창 안에서 엮었는데, 한수를 보고는 그를 좋아하여 늘 사모하는 마음을 품었으며 詩로 읊조렸다. 나중에 하녀가 한수의 집으로 가서 그러한 사정을 갖추어 말하면서, 아가씨가 매우 아름답다는 말도 했다. 한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동하여, 마침내 하녀에게 몰래 소식을 전해달라 부탁하고, 약속한 기일에 찾아가 밤을 보냈다. 한수는 날렵하고 민첩하기가 남보다 뛰어나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도 집안에서는 알지 못했다. 이때부터 賈充은 딸이 유달리 자신을 털고 닦으며 평상시와 달리 유쾌함을 느꼈다. 나중에 속관들을 회견할 때, 한수에게서 진기한 향기가 풍겼는데 그 향은 외국에서 바친 것으로 한번 사람의 몸에 차면 몇 달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賈充이 생각해 보니 武帝(司馬炎)이 오직 자신과 陳騫에게만 하사한 것으로 다른 집에는 이 향이 없는 바였다. 한수와 딸이 사통한 것이라 의심하였으나 담장이 여러 겹이고 대문과 쪽문도 높은데 어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도둑이 들었다 핑계대고 사람을 시켜 담장을 수리 하도록 했더니, 그 사람이 돌아와 말하길: “다른 곳은 이상이 없습니다. 오직 동북쪽 모퉁이에 사람의 발자국이 있으나 담장이 높으니 사람이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라 했다. 그래서 賈充이 딸 주변의 하녀에게 물었더니, 사실대로 대답했다. 賈充은 그 일을 비밀로 하고 딸을 한수에게 시집보냈다. (韓壽美姿容, 賈充辟以爲掾; 充每聚會, 其女於青璅中看, 見壽, 悅之; 乃懷存想, 發於吟詠. 後婢往壽家, 具述如此, 并言女色麗. 壽聞之心動, 遂請婢潛修音問, 及期往宿. 壽躡捷絕人, 躡牆而入, 家中莫知. 自是充覺女盛自拂拭, 說暢有異於常. 後會諸吏, 聞壽有奇香之氣, 是外國所貢; 一箸人, 則歷月不歇. 充計武帝唯賜己及陳騫, 餘家無此香; 疑壽與女通, 而垣牆中密, 門閣急峻, 何由得爾; 乃託言有盜, 令人修牆. 使反曰: 「其餘無異. 唯東北角有人跡, 而牆高, 非人所躡.」 充乃取女左右考

問, 卽以狀對. 充祕之, 以女妻壽.)

‘애정’에 관한 고사는 역대로 끊임없이 문학의 주요 소재이자 인구에 회자되면서 인간에게 환상과 희망을 주는 항목이다. 상술했듯 食色은 인간의 본성이요, 아름다운 이성간의 사랑은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을 가장 솔직하고 대담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여기 등장하는 가충의 딸 가오의 적극적이면서도 과격적 행각을 보자. 가오는 가충의 후처 곽씨 소생이다. (2) 시기와 질투, 탐욕의 화신의 여성형상에서 후술하겠지만 가오의 이렇듯 대담하기까지한 사고와 행동은 어머니 곽씨에게서도 어느 정도 물려받은 기질적 요소도 있는 듯하다. 한수와 가오는 시대를 뛰어넘는 다소 과격적인 애정행각을 보인 자유연애의 대표자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오는 자신의 행복과 혼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인물이다. 빈객인 수려한 용모의 한수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詩로써 마음을 읊은 것으로 보아 문학적 才智도 갖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녀를 통해 마음을 전했으며 한수 역시 그녀에게 호감을 느껴 두 사람은 한수가 담을 넘고 賈充의 딸을 찾아옴으로써 밀회를 나누게 된다. 《藝文類聚》卷35 <人部·淫>에도 기록된 두 사람의 애정행각은 열 너댓 살 어린 나이임에도 자신의 애정에 대해 과감한 가오의 일면을 보여 준다.³³⁾ 사실을 알아챈 賈充의 행위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藝文類聚》에서 그는 딸이 한수와 사통함을 알고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하녀를 죽이고 자연스레 딸을 한수에게 시집보내는데, 유가 봉건예교의 ‘男女有別’의 관점에서 매우 과격적인 일이다. 일찌기 干寶와 葛洪이 魏晉남북조 시대의 풍조에 대해 기록한 대로 “쾌락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³⁴⁾, “담장 위에는 담 넘는 남자가 있고 뿔밭에는 급히 뒤따르는 여인네 있네”³⁵⁾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다.

33) “賈充後妻郭氏, 又生二女, 少有淫行, 年十四五, 通於韓壽, 充未覺. 時外國獻奇香, 世祖分與充. 充以賜女. 充與壽坐, 聞其衣香, 心疑之. 充家巖峻, 牆高丈五, 薦以棘棘, 周行東北角, 有如狸鼠行跡, 充潛殺知婢, 遂以女妻之.” 《藝文類聚》卷35 <人部·淫>

34) “先時而婚, 任情而動, 故皆不恥淫逸之過.” 《文選》卷25 <史論·晉紀論 晉武帝革命 干令升>

35) “上宮有穿窬之男, 桑中有奔隨之女”, 葛洪, 《抱朴子》<外篇 卷25·疾謬>

(2) 시기와 질투, 탐욕- 자유로운 성정의 표출

시기와 질투는 역대로 여성들만의 특성으로 규정되어 유가에서는 아예 ‘七去’ ‘七出’의 명목으로 처절히 응징해오던 부분이다. 그런 사회적 여건 아래에서도 시기와 질투를 마음껏 표출하였던 여성이 있다. 《진서》 卷49 <가충전>에 “가충의 부인 광성군 광괴(郭槐)는 투기의 성질이 있었다”³⁶⁾라고 기록될 만큼 투기로 유명한 광씨는 <후닉3>에서도 그 강박한 성정을 엿볼 수 있다.

賈公闔(賈充)의 후처 郭氏(郭槐)는 투기가 지독했다. 黎民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태어난지 갓 한돌이었다. 賈充이 밖에서 돌아왔을 때, 유모가 아이를 안고 정원에 있었는데, 아이가 賈充을 보고 좋아서 뛰자, 賈充이 유모에게 다가가서 손안에 있는 아이에게 입을 맞추었다. 광씨는 멀리서 보고 賈充이 유모를 사랑한다 여겨 곧 그녀를 죽였다. 아이는 슬퍼 그리워 울었으며 다른 젖을 먹지 않다가 결국 죽었다. 광씨는 그후 끝내 아들을 낳지 못했다. (賈公闔後妻郭氏酷妬, 有男兒名黎民, 生載周, 充自外還, 乳母抱兒在中庭, 兒見充喜踊, 充就乳母手中鳴之. 郭遙望見, 謂充愛乳母, 即殺之. 兒悲思啼泣, 不飲他乳, 遂死. 郭後終無子.)

가충의 후처 광씨는 한수와 사통했던 가오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녀가 질투심이 심하여 유모를 오해하여 죽이고, 그의 아들이 유모를 그리워하다 굶어 죽은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고사이다. 광씨는 금기시되던 투기의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이를 실천에까지 옮긴 대담함을 보인다. 「현원13」에서도 전처 이씨가 돌아오자 남편 가충의 만류를 뿌리치고 하녀들을 이끌고 이씨를 찾아간 바 있다.³⁷⁾ 가충의 후처로 들어온 후 전처 이씨까지 돌아와 正妻로 함께 존재하니 입지가 몹시 불안했음이 당연하다. 후에 광씨는 죽은 아들 대신 외손자 韓謐로 가충의 후사를

36) “充婦廣城君郭槐, 性妒忌。” 《晉書》 卷49 <賈充傳>

37) “賈充前婦, 是李豐女; 豐被誅, 離散徙邊. 後遇赦得還, 充先已取郭配女. 武帝特聽, 置左右夫人. 李氏別住外, 不肯還充舍. 郭氏語充: 「欲就省李。」 充曰: 「彼剛介有才氣, 卿往不如不去。」 郭氏於是盛威儀, 多將侍婢. 既至, 入戶, 李氏起迎, 郭不覺脚自屈, 因跪再拜. 既反, 語充: 充曰: 「語卿道何物?」

있게 하고³⁸⁾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세우기 위해 뇌물까지 썼으며³⁹⁾ 사후 합장의 문제까지 가문 내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행한다. 거침없고 대담한 곽씨의 행동은 두 명을 정식 부인으로 둔 賈充의 행위와 이를 묵인하는 사회에 대한 일종의 도전인 셈이다. 고대 사회에서 금기시 되었던 질투를 거침없이 표현한 곽씨의 행동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댓가를 치르게 된다. 직접적으로 비평하지는 않았지만 뜻은 없지만 작가 유의경은 인과응보의 결과를 보임으로써 독자들에게 곽씨의 성정이 올바르지 않음을 은연 중 드러내었다.

「혹너4」에도 투기의 언행을 서슴지 않던 여인이 등장한다.

孫秀가 晉에 투항하자 晉 武帝(司馬炎)가 그를 매우 총애하여 처제 蒯氏를 시집보냈는데, 부부간 금슬이 매우 돈독했다. 부인이 한번은 투기하여 孫秀에게 ‘오소리새끼’라 욕을 했다. 孫秀는 크게 불쾌하여 다시는 그녀에게 들어가지 않았다. 괴씨는 크게 후회하여 무제에게 도움을 청했다. 당시 사면을 크게 시행하여 군신들이 알현했다. 그들이 나간 후 무제가 홀로 孫秀를 남겨두고 조용히 이르길: “천하가 크게 관대해졌으니, 괴부인도 그 예에 따를 수 있지 않을까?”라 했다. 孫秀는 모자를 벗고 사과했으며 마침내 부부 사이가 처음처럼 되었다. (孫秀降晉, 晉武帝厚存寵之, 妻以姨妹蒯氏, 室家甚篤. 妻嘗妬, 乃罵秀爲「貉子」. 秀大不平, 遂不復入. 蒯氏大自悔責, 請救於帝. 時大赦, 群臣咸見: 旣出, 帝獨留秀, 從容謂曰: 「天下曠蕩, 蒯夫人可得從其例不?」 秀免冠而謝, 遂爲夫婦如初.)

晉 武帝(司馬炎)의 처제 蒯氏는 孫秀에게 시집가서 부부간 금슬이 매우 돈독했다. 그러나 투기로 인해 손수에게 욕을 하고 손수는 크게 불쾌하여 다시는 그녀에게 들어가지 않았다. 괴씨는 크게 후회하여 형부 무제에게 도움을 청했고 마침 사면을 크게 시행하던 무제가 손수를 달래어 결국 부부 사이가 처음처럼 되었다는 일화이다. 괴씨가 손수에게 ‘오소리새끼’라고 칭한 것은 前代에 상상할 수 없는 불경한 언사이다.

38) “槐輒以外孫韓謚爲黎民子, 奉充後。”《晉書》40〈賈充傳〉

39) “賈充妻郭氏使賂后, 求以女爲太子妃。”《晉書》卷31〈后妃傳〉

투기는 《孔子家語·本命 第二十六》에서 七去⁴⁰⁾의 하나로 봉건가정의 종법제도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여성상과는 거리가 멀다. 漢代부터 싹트기 시작했던 歌妓제도가 魏晉남북조 당시는 蓄妾의 형태로 매우 성행하였다. 문벌귀족이 생성되면서 가문의 번영을 위한 가문간의 혼인이 만연했으며 이미 결혼을 한 남성이 가문을 위해 두세번 결혼하여 여러 처를 두는 일도 허다하였다. 손수는 이미 한번 결혼을 한 경력이 있던 남편이고 축첩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더군다나 무제의 처제라는 견고한 입지의 여성이 은근히 권력을 무기삼아 속내를 드러낸 이러한 행위는 夫權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반항의식의 표출이라고도 볼 수 있다.

투기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물질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낸 여성에 대해서 <후닉7>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王丞相(王導)은 성이 雷氏인 애첩을 두었는데, 자못 정사에 관여하면서 뇌물을 받았다. 蔡公이 그녀를 ‘雷尙書’라 불렀다. (王丞相有幸妾, 姓雷, 頗預政事·納貨, 蔡公謂之「雷尙書」)

처첩의 신분이면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만은 볼 수 없는 좀 더 대담한 행위이다. 뇌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정사에도 관여를 했음을 의미한다. 여성의 정치에의 관여는 커녕 관심이나 언급조차 금기되었던 봉건예교적 입장에서는 비판과 응징의 대상이다. 뇌씨는 승상의 첩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십분 활용하여 魏晉이라는 시대의 한자락을 잘 이용한 셈이다.

이들 여성들의 투기와 탐욕은 솔직하고 꾸밈없는 인간의 내면을 여과없이 표현한 경우이다. 유가에서 ‘칠출’의 요소인 두 성정은 비록 <후닉> 편에 실리긴 했으나, 시대와 가문의 질책과 책벌에 관한 기록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들 일화는 유가 이외의 도가, 불가 등 다양한 사상이 공존하고 청담과 심미관이 성행하며, 문학과 예술에 대한 자유로운 담론과 표현이 가능했던 魏晉 시대 여성들의 내적 성정에 대한 솔직하고 대담함이 전대와 달리 비교적 자유로웠음 보여주는 일화이다.

40) “七出者：不順母父出無子出淫僻出惡疾出姑疾出多口舌出竊盜出。”《孔子家語·本命 第二十六》

(3) ‘여색화근’의 관념

자유로운 시대사조를 특징으로 하는 魏晉 시대에도 미색은 곧 화근이라는 전통적 유가의 여성관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혹닉1>에서는 曹丕가 아름다움에 빠져 과부를 부인으로 삼은 이야기가 전한다.

魏(文帝)의 甄皇后는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이전에는 袁熙의 부인으로 대단한 총애를 받았다. 曹公(曹操)이 鄴城을 공략했을 때, 속히 견씨를 불러 오라 명령했더니 좌우에서 아뢰길: “五官中郎(曹丕)이 이미 데리고 떠났습니다.”라 했다. 조공이 이르길: “금년에 적을 격파한 것은 그 계집 때문이었는데!”라 했다. (魏甄后惠而有色; 先爲袁熙妻, 甚獲寵. 曹公之屠鄴也, 令疾召甄; 左右白: 五官中郎已將去.) 公曰: 「今年破賊正爲奴.)

五官中郎⁴¹⁾은 조비인데, 《魏略》에 따르면 원소는 차남 원희를 위해 견희의 딸을 부인으로 맞게 해준다. 원소의 가문은 4대에 걸쳐서三公을 배출한 명문으로 하북지역에서 세력을 떨치며 현제를 영입하여 힘을 기른 曹操와 대결했으나 官渡의 싸움에서 대패했다. 원소가 죽고 원희가 幽州에 진출된 사이, 조비는 곧 원희의 부인이었던 견씨를 보고 한눈에 반해 그녀를 데리고 떠난다. <혹닉1>의 고사는 조조와 조비가 아름다운 견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三國志·魏書》卷5 <后妃傳>에도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⁴²⁾ 그러나 같은 책의 다른 기록을 통해서 보면 그녀는 아름다움만 지닌 여성은 아니었다.

41) 五官中郎將의 약칭으로 光祿勳 아래서 궁중의 여러 殿門의 宿衛를 담당하던 近衛隊長. 曹丕는 建安16년(211)에 五官中郎이 되었다.

42) “建安中, 袁紹爲中子熙納之. 熙出爲幽州, 后留養姑. 及冀州平, 文帝納后于鄴, 有寵. 生明帝 及東鄉公主.” 《三國志·魏書》卷5 <后妃傳>

甄皇后는 태보를 지낸 건감의 후손이며 明帝의 모친이다.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녹봉 2천 석의 관원을 배출해 낸 명문가이다. 그녀의 부친 건일은 현령을 지내다 불행히도 건씨가 3살일 때 세상을 떠났다. 甄皇后가 10살 때는 전란이 끊이지 않던 시대였다. 기근까지 더해져 백성들의 생활은 궁핍하여 백성들은 먹고살기 위해 가지고 있던 금품들을 팔았다. 그때 건씨 집안에서는 이 금품을 대량 사들였다. 이를 보고 甄皇后가 모친에게 말했다. “지금 세상은 혼란스러운데 금품을 사들이고 있으니, 이는 도의가 아닙니다. 주위를 보니 백성들이 모두 굶주리고 있습니다. 부디 곡물을 베풀어 은덕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집안에서는 그녀의 총명함을 칭찬하고 그녀의 말을 따랐다. (文昭甄皇后, 中山無極人, 明帝母, 漢太保甄邯後也, 世吏二千石. 父逸, 上蔡令. 后三歲失父. 後天下兵亂, 加以饑饉, 百姓皆賣金銀珠玉寶物, 時后家大有儲穀, 頗以買之. 后年十餘歲, 白母曰: 「今世亂而多買寶物, 匹夫無罪, 懷璧爲罪. 又左右皆飢乏, 不如以穀振給親族鄰里, 廣爲恩惠也. 」 學家稱善, 卽從后言.)⁴³⁾

10살 어린 나이에 그녀는 이미 백성과 국가라는 대의를 생각할 줄 알았으며, 집안사람들까지 설득할 조리있는 말솜씨 또한 갖추고 있는 才媛이었다. <후닉1>은 건씨의 아름다움 때문에 조조가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묘사하여 ‘경국지색’ ‘여색화근’이라는 개념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조조와 조비는 술한 기록에서 여성에 대한 독특한 편력을 보인다.

조비는 일찍이 <현원4>에서 무제(조조)가 붕어하자, 무제의 궁녀를 모두 데려와 자신을 모시게 하여 모친 卞后의 노여움을 산 바 있다.⁴⁴⁾ 후에는 조비가 한 헌제의 선양으로 황제에 오르고 광귀빈을 총애하면서 점차 건황후와 멀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조비는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면서 건황후는 업성에 남기고 후에는 사약을 내린다. 이렇듯 역사에서 조비와 여성에 관한 기록을 근거로 살펴보면 건황후가 조비를 미혹시켰다기 보다는 조비의 여성편력이 유별났다고 볼 수 있다.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 건황후를 기리는 작품도 전해지니 건안 시대 최고의 시인인

43) 《三國志·魏書》卷5〈后妃傳〉

44) “魏武帝崩, 文帝悉取武帝宮人自侍, 及帝病困, 卞后出看疾, 太后入戶, 見直侍並是昔日所愛幸者. 太后問: 「何時來邪?」云: 「正伏甕時過,」因不復前, 而歎曰: 「狗鼠不食汝餘, 死故應爾!」至山陵, 亦竟不臨.” 《世說新語·賢媛4》

조조의 아들이자 조비의 동생인 曹植이 지은 <洛神賦>가 그것이다. 유명한 낙수의 신 복비를 보고 견황후를 떠올리며 <낙신부>를 지어 형수였던 견황후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했다고도 전한다.

魏晉시대의 ‘審美觀’과 情에 대한 지극한 감상과 표현은 술한 애정과 사랑에 대한 헌신과 순애보에 관한 일화들을 탄생시켰다.

<후낙2>에는 애정에 대한 진솔함과 지극함을 지닌 한 인물에 관한 고사가 실려 있다.

荀奉倩(荀粲)은 부인과 지극히 돈독했다. 겨울에 부인이 병들어 열이 나자 곧장 정원으로 나가 자신의 몸을 차갑게 해서 돌아와 자신의 몸을 갖다 댔다. 부인이 죽자 순봉친도 그 후 얼마 안되어 역시 죽었는데, 이 때문에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봉친이 이르길: “부인의 덕은 일견기 부족하며 마땅히 미색을 위주로 해야 한다”라 했는데, 裴令(裴頠)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길: “이는 흥이 올랐을 때의 일이지 훌륭한 덕을 지닌 자의 말이 아니니, 후인들은 그 말에 현혹되지 말기 바란다”라 했다.(荀奉倩與婦至篤, 冬月婦病熱, 乃出中庭自取冷還, 以身熨之. 婦亡, 奉倩後少時亦卒. 以是獲譏於世. 奉倩曰: 「婦人德不足稱, 當以色爲主.」 裴令聞之曰: 「此乃是興到之事, 非盛德之言, 冀後人未昧此語.)

봉건 예교에서 차단되었던 인간의 자연적인 天性인 애정과 아름다움에 대한 본색을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었던 魏晉시대에 순찬은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부인을 살려내려 했고, 부인이 죽은 후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순찬의 이러한 성정과 행동은 부인이 죽으면 새로운 부인을 취하던 고대의 남성들의 사고방식과 크게 다르다. 미남자로 유명했던 반약 역시 부인이 죽자 <悼亡詩>를 지어 이후 부인이 죽은 후 시를 지으면 이를 ‘도망시’라 부르게 된 시조가 되기도 했다. 중국 역사에서 부인이 죽은 남편을 따라 죽는 예는 종종 ‘烈女’로 칭송되며 흔히 있는 일이지만, 남편이 부인을 따라 죽은 예는 극히 보기 드물다 하겠다. 그러나, 순찬은 본성에 충실하여 부인에 대한 애뜻한 사랑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殉情에 이른다. 이 아름다운 고사를 왜 유의경은 굳이 혹닉 편에 기록하였을까? 《荀粲別傳》의 기록에 의하면 순찬은 유술을 중시하던 형제들과는 달리 도학과 현학을 숭상하였으며 여자의 미색을 부정시하던 유가의 입장과는 달리 부인의 재지는 논하기에 부족하며 미색을 위주로 해야 한다(婦人者, 才智不足論, 自宜以色爲主)고 늘 생각하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관점 역시 여성의 하나의 미적 대상으로 보는 폄하의 뜻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죽음으로 純情을 지켰던 순찬의 부인에 대한 애정과 여성의 미색에 대한 당당한 주장과 대담한 표현은 여성의 미색을 공공연히 논하기 꺼려했던 유가의 닫힌 관점을 뛰어넘는 괄목할 만한 현상이며 이런 관점이 유학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하다.

이상으로 《世說新語》의 <혹닉> 편에 나타난 악녀의 형상을 살펴보았다. 그녀들은 때로는 축첩과 기녀에 탐닉하는 배우자를 향해 강한 반발심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과 재물에 대해 노골적으로 욕망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애정에 있어서도 과감하고 대범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으며 이를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당돌함까지 보인다. 《世說新語》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을 <혹닉>이라는 제목아래 제한적 시각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유가의 전통과 현학 및 청담 등 다양한 학술과 사상이 공존하는 魏晉 시대만의 독특한 환경 아래, 전통적인 봉건예교의 틀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魏晉 시대의 새로운 기풍을 지닌 다양한 여성 형상이 발현되고 창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으로 《列女傳》과 《世說新語》에 나타난 부정적 여성 형상에 대해 살펴 보았다. 상술했듯 이 두 작품은 각각 유가와 도가 및 다양한 학술과 사상이 공존하는 漢代와 魏晉의 작품으로 작품에는 각 시대가 지배하는 사상이 농후하게 영향을 끼쳤다. 《列女傳》은 유향이 임금을 경계하려는 목적으로 지은만큼 그 내용은

매우 교훈적이며, <얼폐>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지배자인 군주나 제후의 성정을 어지럽히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世說新語》에서도 <혹녀>편을 따로 두어 언변에 능하고 사리에 분명하면서도 ‘忠’과 여성의 ‘四德’에 부합하는 <현원>편과 뚜렷한 구분을 짓고 있다. <현원>편이 비록 유가의 봉건예교의 이상적 여성형상을 칭송한 것은 아니지만, 맨 마지막에 <혹녀> 편을 두어 남자를 미혹되게 하고 무엇인가에 탐닉하는 여성상을 기록한 점은 매우 제한적인 시각이다. 아울러 이 두 작품의 작자가 모두 남성이어서 다분히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서술되었다는 점이다. 《禮記》에서 ‘婦德貞節’ ‘三從之道’ 등으로 표출된 여성의 윤리체계가 이론화되고 한 무체가 ‘獨尊儒術, 罷黜百家(오로지 유가만을 존숭하고 다른 사상과 학문은 축출한다)’를 기치로 내건 이후 정립된 가부장적 윤리관이 여성의 지위를 남성에 종속된 역할로 축소시킨 영향이 두 작품에 명백히 드러난다. 이는 漢代에 지어진 《列女傳》은 말할 것 없고, 비교적 사상과 학문이 자유로웠던 魏晉시대에 지어진 《世說新語》 역시 예외는 아니다. 물론 《世說新語》에서는 대체로 주관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 묘사로 서술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혹녀>이라는 제목에서 주는 주체와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면 서술 자체가 다분히 남성주의적이라는 결론을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다. 이는 魏晉이라는 시대가 도가사상을 표방하고는 있으나, 문벌의 계승을 위해 집안에서는 유가의 사상을 家學으로 삼는 이중적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특수한 사회적 배경이 원인이라고 하겠다.⁴⁵⁾

그러나, 봉건적 가정 예법과 종법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축소판인 가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봉건예교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제한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전통적으로 유가사상이 지배하는 시대의 여성들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 악녀 형상으로 분류된 다양한 여성들의 형상을 단순히 흑백의 논리로 비판만할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고에서 고찰한 이들은 시대의 잣대에서는 매우 불경하고 방자한 언행으로 나라와 남성을 위협하고 위협에 빠뜨리는 경계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결론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그들의 개성과 지혜로움, 당당함, 치밀한 계획성, 그리고 대범한 행동력 등은 봉건예교라는 답답

45) 錢穆, 〈略論魏晉南北朝學術文化與當時門第之關係〉《中國學術思想史論叢》, p.159. 東大圖書公司, 臺北, 1981.

한 틀 속에서 벗어나고픈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시도였다. 이는 시대정신이 비교적 자유로운 《世說新語》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가정신이 지배 이념이었던 漢代 《列女傳》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향은 《列女傳》 전체에서 《女誡》나 기타 역사서의 《列女傳》에서 고지식하게 예의를 묵수하던 경직된 윤리적 차원의 여인만을 칭송하는 것과는 다르게 때에 따라 임기응변할 수 있고, 남편을 바른 길로 이끄는 융통성 있고 지혜로운 여인을 존송하고 있다. <얼페>편의 여성들이 ‘忠’과 ‘三從之道’ 등 남성적 지배 이념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그녀들을 혹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1세기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여성이 각광을 받는 시대이다. 여성들의 자기정립과 도전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현재, 본고에서 다룬 여성들의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면모를 중점을 두고 옥석을 가려내는 안목과 능력이 필요하다. 학문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뛰어난 정치적 역량, 대담한 실천력까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 여성의 요소를 갖춘 漢代와 魏晉 시대에 악녀라 분류되었던 여성들에 대해 남성중심적이고 평면적인 흑백논리의 시각을 탈피하여 재해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역사의 평가에서 혹독한 혹평을 받은 악녀들은 한편으로는 시대의 부조리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강한 집념과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보여줌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자극과 귀감을 되고 있다.

《參考文獻》

1. 原典, 註釋, 史料

- 劉 向, 《列女傳》, 黃清泉 註釋, 三民書局印行, 臺北, 1996.
劉義慶, 《世說新語》(上下), 思賢講舍刻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4.
《詩經》, 13經注疏本, 臺北, 藝文印書館
《禮記》, 13經注疏本, 臺北, 藝文印書館
司馬遷, 《史記》, 張守節 正義, 洪氏出版社, 1974.
班 固, 《漢書》, 顏師古 注, 洪氏出版社, 1975.
《文選》, 臺北, 文津出版社, 1987.
葛 洪, 《抱朴·子外篇》(《新編諸子集成》本), 臺北, 世界書局, 1972.

2. 單行本

- 魯 迅, 《中國小說史略》, (《魯迅全集》9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1.
勞思光, 《中國哲學史(二)》, 臺北, 三民書局, 1981.
陳東原, 《中國婦女生活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4.
김원중, 《중국의 풍속》-성문화의 틀, 을유문화사, 1997.
김인숙, 《사대부와 술·약 그리고 여자》, 書景文化社, 1998.
易中天, 《중국의 남자와 여자》, 洪광훈譯, 법인문화사, 2003.

3. 論文

- 김장환, 《世說新語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 1987.
김장환, 《魏晉南北朝 志人小說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金元中, 《世說新語와 魏晉清談의 關聯問題》, 성균관대학교, 1994.
김인숙, 《魏晉時代 儒敎의 女性觀》, 《龍巖車文燮博士停年紀念論叢(檀大史學志28輯)》, 1995.
김인숙, 《魏晉士風과 女性觀의 變化》, 檀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
박경희, 《世說賢媛呈現之女性》, 韓國中語中文學會, 第18輯, 1996.6.

《英文提要》

《Lienǔ-zhuan(列女傳)》 is representative literary works of Han dynasty(漢) which claims to support Confucian ideas. Liuxiang(劉向) created 《Lienǔ-zhuan(列女傳)》 to admonish Cheng-dì(成帝) who gave his heart to Zhao-feiyan(趙飛燕) and spoiled the political affairs. The contents were based on feudalism of Confucian ideas, so very instructive.

《Shin-shuo Hsin-yu(世說新語)》 is the representative literary works of gathering anecdotes about famous people who lived in Wei-Chin Nan-Bei dynasty(魏晉南北朝). Wei-Chin Nan-Bei dynasty(魏晉南北朝) is a political terrorism period, but in the literary · ideology · philosophy field that era can be called as a period of social revolution which created new social system and advanced culture so on.

Through both literary works we can find various tendency of the women who had lived in those period, especially the women named femme fatale. This manuscript focuses on femme fatale of both period, and considered how the different ideologies influence the lives of those women. This manuscript would attempt to reinterpret the positive and aggressive tendency of the women underestimated as femme fatale simply because they went up against the Confucian rules.

關鍵詞 : 列女傳, 世說新語, 위진(魏晉)시대, 고대 중국여성, 팜프파탈

이 논문은 2011년 5월 20일에 접수되어 2011년 6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1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